

|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|

산재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산재환자의 작업복귀의사와의 관련요인

▲ 영 미 /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 전공

본 연구는 산재병원 입원환자의 작업복귀 의사와의 관련요인과 산재환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작업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.

연구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499명중에서 200명의 산재환자만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개별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복귀의사와의 관련 요인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, 요양기간이 6개월 미만, 근골격계 진단, 장해등급이 없을 때에 작업복귀의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, 장해형태분류에서 폐질등급자의 작업

복귀의사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. 작업복귀 희망형태는 상해 전 근무한 직장 내 동일 장소를 원했으며, 작업복귀의사의 영향요인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, 작업복귀의 장애요인으로는 신체적 결함이 가장 큰 문제였고, 작업 복귀 시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은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.

결론적으로, 본 연구에서는 노령자,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·장기요양환자, 척수 및 뇌혈관질환의 중증장애 산재환자들은 작업복귀를 하지 못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,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재활, 직업재활, 사회재활이 연결되는 포괄적인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기울어야 될 것이다.

